

창덕궁 담에 접한 자생주거지에 관한 연구\*  
- 원서동 무허가 94번지의 실측 및 개선 안 기초연구 -

A Field Survey of Idiosyncratic Dwelling Space attached to  
Chang-Duk Palace's West Fence

윤숙희\*

Yun, Suk-Hee

정진원\*\*

Chung, Jin-W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ocument and analyse spatial transformation of an unauthorized dwelling units on a peculiar site of Seoul. It's physically attached to the behind part of the west boundary wall of Chang-Duk Palace. These dwelling units took not only the site, the narrow street which had been a stream, but also the two parallel walls of others for their home. The two walls, one from the palace wall and the other from the wall of a house which distanced itself from the palace wall about 3.5 m for the reas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ve been held as the main structural members in forming the shelter. With examining the realm of time which provide the base of the spatial realm, this research shows how the multiple linkages tangled in an illegal shack did gain and actualize an architectural language of idiosyncrasy with spontaneous order inherent in inhabitants.

Keywords : Personalization, Singularity, Living Modality, Self-Organization, Heteronomou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창덕궁 후원 서쪽 궁궐 외곽 담에 접해있는 원서동 일대 주거들로 인한 담의 물리적 파손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궁궐 담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대상 주거들이 철거 되어 한다는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문화재 복원 논리의 정당성에 당면하여 존립의 합법성을 거론할 수 없는 무허가 주택들이 우선적인 철거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서동(苑西洞) 무허가 94번지를 근대와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질적이지만 주도적인 사회문화 주거환경과 구별되는 지역적인 주거형상으로 정의 내리고자한다. 이러한 연구의 전제는 무허가 94번지가

추상적 형태 논리 없이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구현된 창조적인 공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과거 60, 70년대 경제논리로 정당화된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의 이상적 가치와 의미만을 내세우는 복원사업은 복원 대상 주변에 자리 잡은 지역적 주거환경에 대해 미화된 문화재 편향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고유성을 배제하고, 물리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지우기 작업이 됨과 동시에 가시적 개선 혹은 계몽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자기 자신으로 편집하여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적응방식을 표출하고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실측 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변환경 요소들의 지속적인 수정과 통합으로 국부적인 지역성(서울성)을 확보한 한 주거공간의 형성과정과 현황, 그리고 배경을 기술함으로써 긍정적인 개선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한다.

\*경기대 건축전문 대학원 박사과정

\*\*경기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2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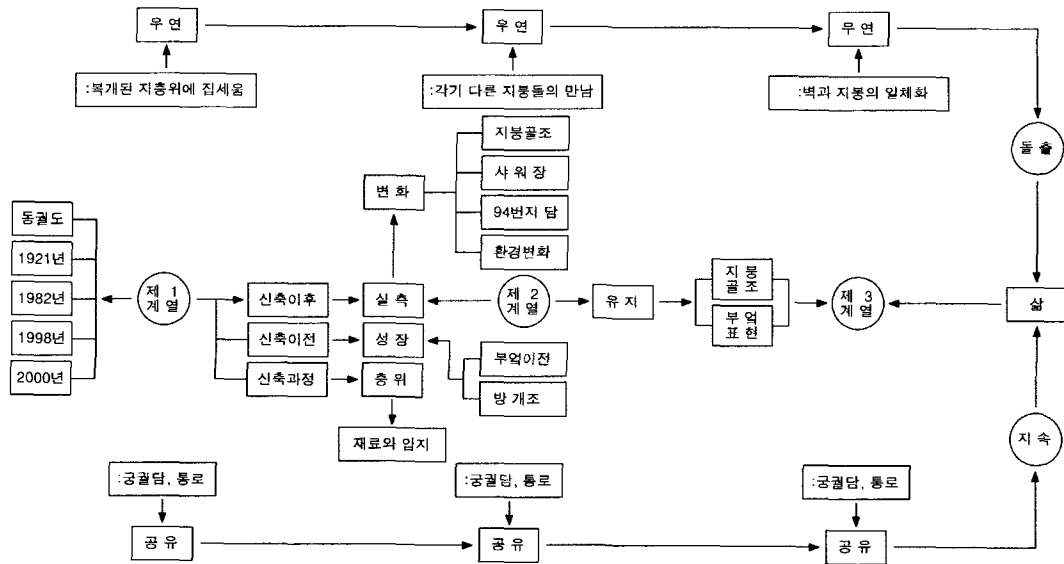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흐름도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600여 년 동안 오랜 시간의 도시구조를 지닌 서울의 지역성을 읽을 수 있는 한 특정 대지 위에 구축된 무허가 주거공간의 주변환경과 성립에 대한 실측 조사 연구이다. 현재 이 주거 군은 자신들의 거주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복개된 좁은 길뿐만 아니라 평행한 다른 두 벽들을 점유하였다. 그 두 개의 평행한 벽체들 중 하나는 창덕궁의 담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재 보호구역 법규에 따라 그 궁궐 담으로부터 3.5m의 거리를 둔 일반 단독 주택들의 벽이다. 그 무허가 주거는 창덕궁의 서쪽 외곽 담의 외면을 방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무허가 94번지이며 원서동 94, 95, 96번지 단독 주택들의 배면과 창덕궁 후원<sup>1)</sup>의 요급문 우측에 위치한 담 사이에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신축을 위해 철거된 94, 95, 96번지의 각기 다른 높이의 방벽들은 무허가 94번지내 주거들이 부엌이

나 기타 부대시설들을 실내 공간화 하는 외벽 담으로 이용되고있어 철거되지 않았다. 그 외벽 담은 이제 자연히 무허가 94번지의 소유가 되어 신축된 94번지와는 분리되어 있다. 무허가 94번지는 선형의 통로를 따라 1 가구당 1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6개의 방으로 구획되어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 가구가 두 개의 방을 소유하고 사용함에 따라 총 가구수는 5가구가 된다. 본 연구의 실측 조사는 이들 5가구중 방 내부의 실측 조사를 허락한 조심씨택과 심철복씨택, 그리고 공유하고있는 통로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현황 도면 실측과 인터뷰, 그리고 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담 주변의 지리적 변화는 연장자(年長者)인 장기 거주 지역 주민 인터뷰와 동궐도(東闕圖)등의 고지도, 연대별 지도, 항공측도 그리고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였다. 현장 조사는 2001년 4월21일부터 2001년 9월7일 사이 5차례의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방과 통로에 대한 실측은 94번지 내부의 일괄적인 건축요소를 선정한 후에야 가능하였으며, 그 요소는 부엌을 면한 2m 높이의 방벽 체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현재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복원사업에 대한 각 계층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인터뷰 조사는 복원 사업을 위한 철거 대상 주택들뿐만 아니라 대상 주택 외의 주민들, 창덕궁 관리 사무소 직원들,

1) 조선 태종(太宗) 5년(1405) 10월에 창덕궁이 조성되고 그 이듬해 궁의 동북우에 후원을 만들어 연못가에 해운정(解殘亭)을 짓고 왕과 신하들이 연형(宴亭)과 관등(觀燈) 등의 유연(遊宴)을 이곳에서 베풀게 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 창덕궁과 함께 20년간 폐허가 되었다가 광해군 2년 (1610)에 복구하면서 영화당(映花堂)과 정자를 세우고 9만평에 이르는 독특한 경관을 지닌 화려한 원유를 만들었다. 그후, 현재 불리고 있는 비원(秘苑)이라는 명칭은 1904년에 붙인 것이며, 원래는 후원(後苑), 북원(北苑), 북원(北園), 또는 금원(禁苑)이라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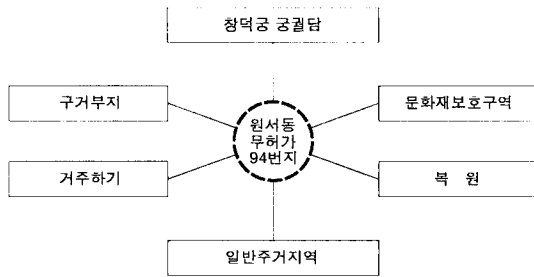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의 층위들

그리고 복촌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있는 구 의원과 관련 학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 주거의 구축과정에 대한 기술 없이는 입지와 형상이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주변 여건의 변화와 거주인들의 필요에 따른 구축 행위와의 중첩으로 94번지의 존재성이 지속<sup>2)</sup>되고있음에 따라, 그 구축 과정에 관련된 인자들을 제1계열, 제2계열, 제3계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그림1> 이러한 연구 체계의 설정은 대상지의 연속성이 특정 장소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과 거주인의 정주 욕구(to be sheltered)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수정과 통합에 기인한다.

즉 개별적인 주변 상황과 환경들이 거주인의 필요에 의해 점유 혹은 공유되어 상호적으로 현재 대상지가 지닌 지역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계열화로 지칭되며, 이 특정 계열화는 들뢰즈의 인과율<sup>3)</sup>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원서동 무허가 94번지를 이해하는 인문적 토대를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이라는 확실적인 물리적 기준 적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본 연구의 진행순서로 차용되었다.

2) 조성훈(2001), 「소모와 내적 경험」, 이론문화연구소,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워서 심지어는 그것이 도무지 나와 분간이 되지 않을 때(이를 흔히 존재의 연속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과 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3) 인과율(因果)은 하나의 계열이다. 그리고 하나의 계열은 다른 하나의 계열과 만난다. 인과율은 필연적 계열들이 서로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하나의 장이며 이 장 속에서 모든 결과들이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인과율은 서로 다른 계열들의 연쇄. 그리고 이 계열들의 우연적 만남-각각의 원자들은 서로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이기에 이들의 만남은 우연적이다-에서 발생하는 연쇄들의 방향전환 혹은 연쇄들의 변형이다. Deleuze, Gilles. The Logic of Sense. Trans. Mark Lester. New York: Columbia UP, 1990. pp.266-279.

## II.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 1. 창덕궁(昌德宮)<sup>4)</sup>의 영역과 담

창덕궁은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궁궐의 건축이다. 창덕궁의 공간을 기능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정사(政事)를 위한 정부(政務)공간과 왕족과 기타 궁인이 거처하며 생활하는 일상생활공간, 휴식 정서를 위한 정원공간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원공간에는 누각 정자 등의 건축물과 연못, 조산등으로 구성되며, 궁궐의 동쪽이나 서쪽 혹은 북쪽에 위치하여 일상생활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창덕궁내의 각 권역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되는데 신하들의 각사(제 1권역), 왕과 신하들의 공간(제 2권역, 외전 중심), 왕과 왕실 가족의 권역(제 3권역, 내전 중심), 그리고 후원(제 4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門)은 통로로서의 기능과 함께 공간구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며, 공간의 성격에 부합되는 명칭을 통하여 상징체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 대상지에 위치한 요금문(曜金門)은 신하들의 각사(各司), 즉 제 1권역에 속한다. 1권역은 왕을 보좌하여 국정을 처리하는 신하들이 일하는 곳으로 궐내각사(闕內各司)가 모여있다. 궐내각사에는 정치, 행정 업무 담당하는 정규관원들의 활동공간과 왕실의 경비와 호위를 맡는 군사기구, 왕실의 시중을 드는 관리기구가 있다. 동궐도에서는 이 권역내에 있는 대부분의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리들과 군사들의 행동에 편의를 도모한 활동성이 강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권역에 설치되는 궁성문은 궁궐과 외부경계를 결정하며 각 궁성문의 명칭에는 오행(五行), 오상(五常)등, 유교의 정치이념을 보여주는 공통되는 글자가 나타난다. 서쪽문을 금허문(金虛門), 요금문(曜金門) <사진 1,2, 그림 3>, 경추

4) 사적 제122호. 1963년 지정. 1405년(태종 5) 완공되었으며, 면적 43만 4,877 m<sup>2</sup>. 태종(太宗)이 즉위한 후 1404년(태종 4) 한성(漢城)의 향교동(鄕校洞)에 이궁(離宮)을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공하고 창덕궁이라 명명하였다.

5) 창덕궁, 장순용, 궁궐(宮闕)이란 원래 '궐을 갖춘 궁'이다. 임금과 왕족이 거처하는 곳을 궁가(宮家), 궁방(宮房)의 뜻으로 '궁(宮)'이라고하고, 궐(闕)은 궁의 앞에 세워지는 망대(望臺) 역할을 시설을 일컫는 것이므로 궁궐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권력의 주체인 왕실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두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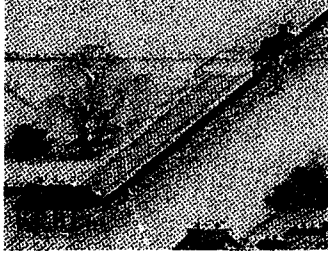


그림 3. 동궐도의 요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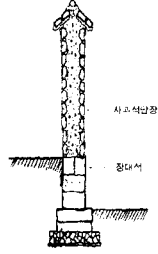


그림 4. 담 단면



사진 1. 曜金門



사진 2. 문박

문(景秋門)이라 한다<sup>6)</sup>. 특히 요금문은 궁성문의 동궐의 서쪽 문으로 궁에서 일하던 상공의 시체를 내보내던 문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궁궐의 외곽 담은 궁궐내부를 방어, 보호하는 기능 등이 있다. 담은 재료에 따른 축조 방법과 높이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각 공간에 따라 담의 종류가 다른데 대상지는 후원과 창덕궁 사이 외곽 담 <그림 4>에 속해있다.

창덕궁의 외곽담은 사괴석으로 높이는 2700-3000mm이고, 두께는 600-700mm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의 토지를 관장하던 일인 관리들의 주택들이 원서동에 면한 궁궐담 주변을 따라 위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원서동은 1914년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이전 북부 광화방(廣化坊)의 원동(苑洞), 관동(觀洞)과 양덕방(陽德坊)의 계동(桂洞) 일부를 병합하여 원동(苑洞)의 이름을 그대로 따랐다가, 1936년 4월 1일부로, 창경원 서쪽에 있다는 이유로 원서동으로 고쳤다<sup>8)</sup>.

## 2. 무허가주택

전쟁 후 1945년 1월-1949년 5월의 5년간 서울에 들어 온 인구는 657,099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 주민들을 위한 주택수요로 서울의 주택난은 가중되었다. 이 기간 내 주택문제의 특색은 적산 가옥으로 갑자기 밀어 닦친 인구를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이 기간동안 신축주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귀속 가옥에조차 들어 갈 수 없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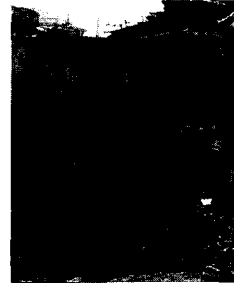


사진 3. 수로

은 하천변이나 산비탈에 판자집을 짓기 시작했다. 일제 기간동안의 토막(土幕)이었던 것이 이른바 하꼬방 판자집으로 바뀐 것이다<sup>9)</sup>. 판자집(하꼬방)이란 언제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 월남가족들의 임시적 거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 점령군이 진주시에 가지고 들어온 라왕. 미 송등의 목재조각과 루핑, 깡통등을 이용하여 '바라크(Barrack 혹은 Block집)'을 짓기 시작하여 자연 발생된 낱말로 추정된다<sup>10)</sup>.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 대상지 역시 해방 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주거적합성이나 건전성에 따라 정상주택 또는 불량주택의 개념이 형성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구분 기준은 물리적 시설과 관련된 주택의 불량성보다는 적법성 문제, 즉 건물의 소유권등기 유무와 건축허가의 유무등이 주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불량주택의 평가 기준에 대한 언급은, 1976년 건설부가 밝힌 아래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불량성보다 불법성이 강조되었으며, 개념적이며 포괄적

6) 김비들(2000), 「권역별로 나타난 창덕궁 문의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권 1호, p. 310.

7) 유재희(1991),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1권20호, p. 140.

8) 종로구 동명 유래, 종로구청 자료.

9) 조용훈, 상계서, p. 53 재인용.

10) 김란기(1987),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6호, p.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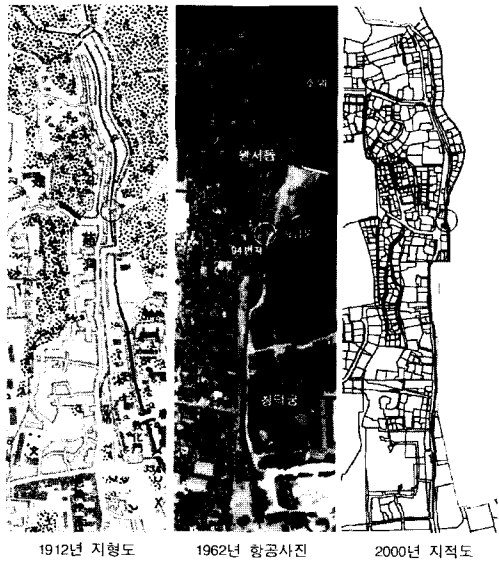


그림 5. 대상지 주변환경 변화

인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규정은, 1) 7평 미만의 지나치게 왜소한 주택(불법성), 2) 국.공유상의 무허가 주택(불법성), <그림 6>, 3) 천막, 판자집, '바라크'등과 같은 건축구조상 정상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불량성), <그림 7>, 4) 전기, 상수도 등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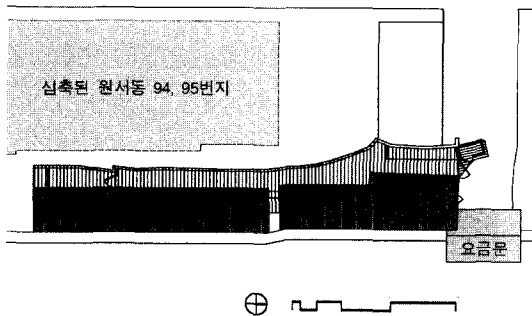


그림 6.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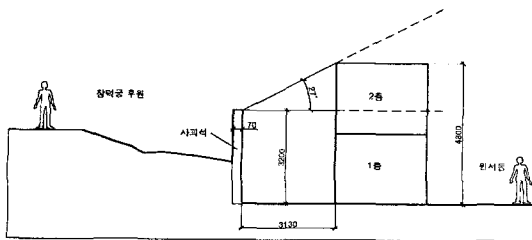


그림 7. 문화재 법규도면

대시설이 현저하게 불비(不備)된 주택 등이다<sup>11)</sup>. 본 연구 대상지의 입지와 주거 환경은 위에서 규정한 물리적 불법주거의 평가 기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 있다.

### III. 담에 의존한 주거의 성장

#### 1. 무허가 94번지의 형성

우편 수취인 주소는 원서동 94번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곳 거주인 들은 가구당 부과되는 “하천 부지 사용료” 명목의 세금을 내고 있다. 후원의 서쪽 외곽 담을 따라 남류(南流)하여 궁궐 밖에서 궁궐 안의 금천교(錦川橋)<sup>12)</sup>로 흐르는 물길<sup>13)</sup>이 있었으나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사진 3, 그림 8> 이로 인해 물길 가에 지어졌던 주거들과 담 사이에는 3.5 m 내외의 도로가 생겨났고, 그 위에 해방 전후와 전쟁을 전후하여 현재의 주거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 블록을 쌓은 뒤 회칠 마감된 통로에 면한 방 벽체는 5가구 모두 같은 높이(약 2 m)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방벽체는 주요한 골조 벽으로서, 동쪽으로는 2.2m(창덕궁 담 기준) 높이의 사파석으로 된 궁궐 담의 외면에 시멘트로 접합된 각 가구 사이의 벽체와 그 상부의 슬레이트 지붕을 지지하고, 서쪽으로는 이전 원서동 94,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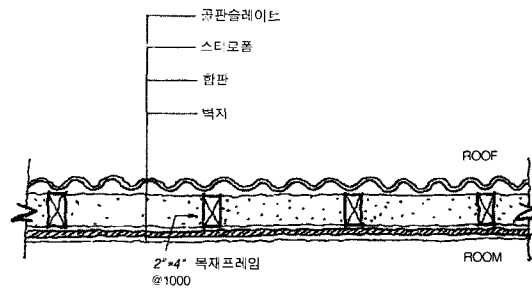


그림 8. 지붕 단면

11) 류영국(1990), 「불량주택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3호, p. 78-79.

12) 장순용, 『창덕궁』 대원사, 1999, p.38. 태종5년에 창덕궁이 창건된 6년뒤인 11년(1411) 3월에 진선문 밖에 설치되었다. 다리 윗부분은 길이가 12.9 M, 폭이 12.5 M정도로 의장을 갖춘 국왕의 나들이 때 행렬 곧 노부(滿簿)의 폭에 맞도록 다리의 폭을 설정하였다고한다.

13) 수젯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구거(溝渠).

14) 총독부 발행 1915년, 1921년 지형도와 주민들의 증언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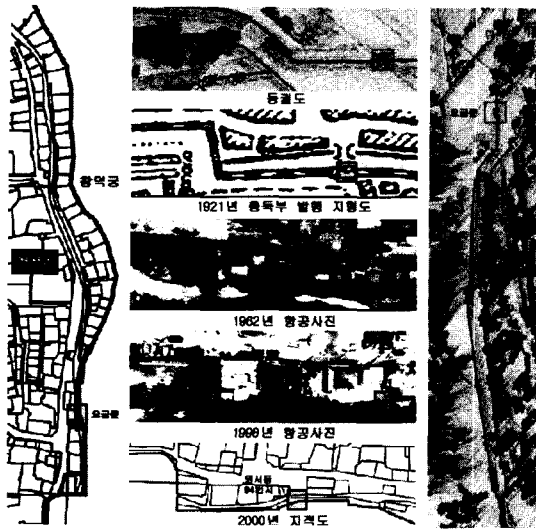


그림 9. 대상지 주변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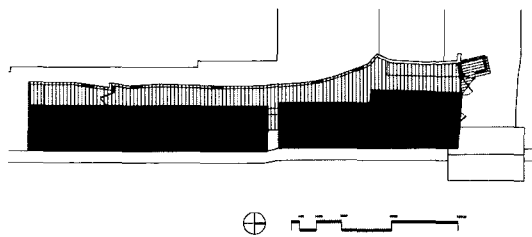


그림 10. 신축 이후의 일체화된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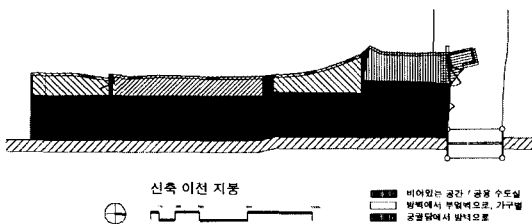


그림 11. 92번지 신축이전의 분절된 지붕

96번지의 방 벽체 외면에 부착된 2"×4"의 목재로 짜여진 격자 프레임 위의 투명한 플라스틱 골 슬레이트 지붕을 지탱하여 두 타자의 벽체들을 연계하는 구조형상을 취하고 있다.<그림 15,17> 현재 총 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정면 입구에서 순차적으로 조심씨 내외, 주말에만 머물다 가신다는 심칠복씨, 심칠복씨가 세를 놓고있는 방에 거주하는 궁중 요리원에 다니는 학생, 부부와 남매가 총 4명인 용훈이네,

그리고 마지막 집의 좁은 내외, 총 10명이 거주하고 있다.

## 2. 실 측

### 1) 신축 이전 상황 - 공유(共有)공간

70년대에 현재의 장소로 이사온 거주민, 거주민<sup>15)</sup>의 증언에 따르면 본 주거지는 50년대 중반에 조성되었으며 이사왔을 당시 현재처럼 6가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심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면에 공동 수도장<사진 5>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폐쇄되어있고, 2가구가 수도 계량기를 나누어 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사왔을 당시(1972) 94번지 무허가 주거들은 각 주거마다 방 하나와 부엌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80년대 즈음하여 각 가구마다 방과 부엌사이의 벽을 헐어냈다고 한다. 방보다 낮은 부엌의 지면을 흙으로 매워, 방과 같은 레벨로 조정하고 하나의 방으로 합병 조정하고 부엌을 공용의 통로 맞은편 벽(철거 이전 원서동 94번지, 95번지, 96번지 방벽)<사진 6>에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집의 심칠복씨는 방과 부엌공간을 하나의 방으로 합병하는 대신에 방과 부엌사이의 벽을 그대로 두고 부엌을 방으로 개조한 뒤 세를 놓고 있다. 이로 인해 구축 당시의 방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정면에 있는 문만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거주민들은 정문 양쪽에 위치한 재래식의 공동화장실과 공동 수도실, 공동 보일러실 겸 창고, 그리고 심칠복씨의 부엌이자 공동 샤워장을 공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청에 의해 공동 수도장은 폐쇄되고, 부속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내야했던 심칠복씨의 부엌 공간은 현재 철거되고 바닥에 흔적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거주민들은 현재 보일러실과 화장실(1실)<사진 4>만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이사온 거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여 통로와 부엌공간 상부의 지붕 골조 형상, 재료, 그리고 면의 경사도와 방향이 가구마다 달랐다.<사진 9> 그로 인해 가구와 가구의 경계가 되는 통로 부분의 상부 접면은 트여져있었다. 평이하지 않은 조심씨택의 지붕 골조 방식에 대한 질문에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서 라고 답변했으며 한때 7인, 3대가 한 방에 거주한 적

15) 조심(73), 1972년에 94번지 무허가 주택으로 이사왔으며, 그동안 받아온 철거 명령서를 모아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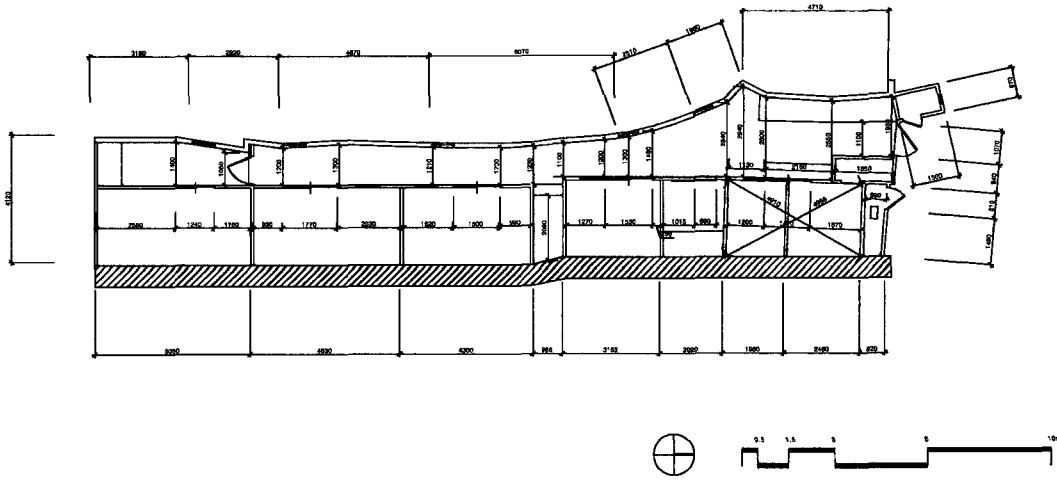


그림 12.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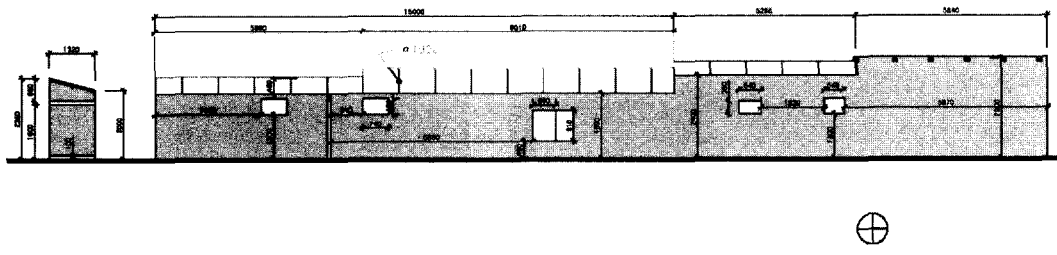


그림 13. 부엌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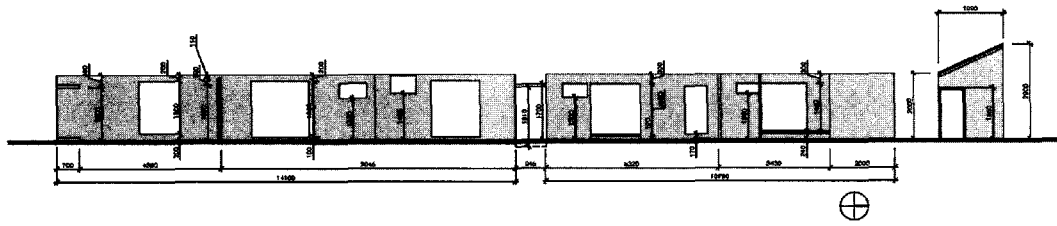


그림 14. 방벽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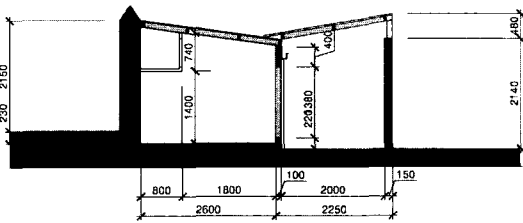


그림 15. 심철복씨택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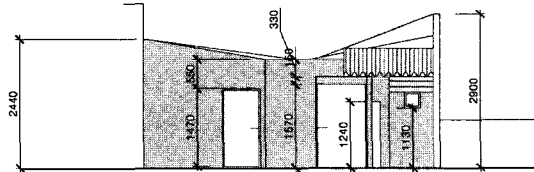


그림 16. 정면도

도 있었다고 했다.

2) 신축과정-재료와 층위

신축 당시 행한 94, 95, 96번지의 철거로 인해 무

허가 94번지가 합병하고있었던 방벽 체들의 다 양한 표면들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다. 철거되고 남아있는 방벽들로 노출된 무허가 94번지 그 당시 상황은 가장 깊숙이 유폐되었던 것들이 가장 밝은 곳으로 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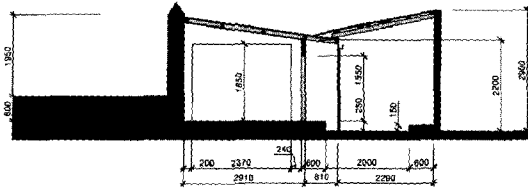


그림 17. 조심씨택 단면도

아오르고 생성의 모든 오래된 역설들이 새로운 청춘 속에 모양새를 갖춘다는 들뢰즈(Deleuze)가 말한 주변성의 부각과 더불어 어느 층위에서는 입이던 것이 다른 층위에서는 향문이 된다<sup>16)</sup>는 층위에 대한 사유를 대변하고 있었다. 철거된 주택들의 각 방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게 했던 각기 다른 마감재료와 남겨진 벽체의 구조로 보아 철거된 주택들은 한옥들이었으며 궁궐 담에 면하여 방(벽지), 부엌(회벽)과 욕실(타일), 그리고 창고(회벽, 토담)가 조성되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허가 94번지의 시멘트 블록 벽체들이 궁궐 담에 접해 있으며, 시멘트로 그 담과 일체화된 벽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10>.



사진 8. 신축



사진 9. 이전



사진 10. 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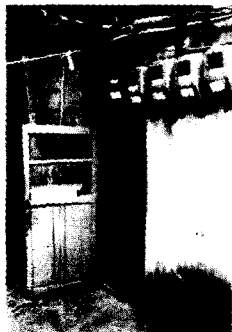


사진 4. 화장실



사진 5. 수도장



사진 6.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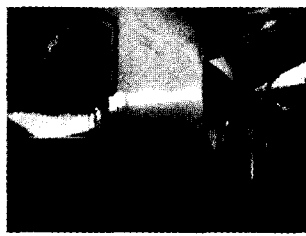


사진 7. 지붕 틈새

### 3) 신축이후-일체화 된 부엌 벽과 지붕

조사 당시 긴 가로 공간이었던 무허가 94번지-신축이전에는 일실 공간들로 분절되어 사용되고있는 영역성을 지닌-를 구성하는 6개의 단일 주거 공간들의 부엌 측 지붕이 전면 벽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높이와 구조로 대응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현재 부엌과 통로의 상부는 일괄적인 격자형 프레임에 투명한 플라스틱 골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있으며<사진 8>, 분절되어있던 부엌 벽체들<사진 11>은 회벽으로 마감되어 일체화되었다.<사진 12> 더불어 전면 주택 뒤에 있어서 도로선상에서 인지하기가 어려웠던 이전 상황과는 달리 신축된 94번지의 계획에 따라 전면에 빈 공터 화단이 조성되어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94번지의 부엌측 벽면의 외면이 도로선상에서 인지 가능하다<사진 12>.

조심씨 내외는 일체화된 부엌 상부의 투명한 재료로 인해 온실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이전에 시원한 바람이 유입되던 환경과는 사뭇 다르다고 했다. 부엌 측 지붕은 이전에 벽의 측면에 부착되어 있었

16)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옮김, 민음사, 1995, p. 46.





사진 11. 부엌 벽 외면



사진 12. 일체화된 부엌 벽

다. 현재는 그 벽체 위에 목재 구조가 세워지고 얹혀져 약 300 mm가량 높여짐으로 통로공간은 상당히 밝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다른 경사도를 지닌 각 가구의 지붕을 트임 없이 연결했기 때문에 투명한 지붕 재료를 통해 유입된 열기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둡고 서늘하여 바람이 통로를 따라 정문에서 다량 이입되던 이전 상황과는 상반되는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사진 8>에 서처럼 부엌 상부를 덮는 장치들이 구조 위에 부가되고 있다.

#### IV. 문화재에 접한 주거의 의미와 역할

##### 1. 물화(物化)된 우연(偶然)성들의 중첩

본 대상지의 장소성과 공간성을 구축하고있는 우연성들의 중첩, 제 1계열의 우연은 복개된 구거부지(溝渠敷地) 위에 집을 세운 행위이다. 대상지가 지닌 특정 장소성(창덕궁)에 시대적 배경(전쟁)으로 야기된 물리적 환경(판자집)의 연합으로 우연성은 물화(物化, materialize)되고, 이 물화된 우연성은 지역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제 2계열에 해당하는 우연은 각 층위들-궁궐, 주거지, 담, 방벽, 도로-의 합병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의미의 층위이다.<사진 10> 궁궐 담의 상징적 가치는 일제시대와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간대들을 거치면서 상실되었다. 궁궐 담(문화재)과 주택(무허가 주택)의 공생 상황을, 평형 상태는 삶과 성장의 영역 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유지되고 자연의 내재성(內在性)은 삶과 죽음의 공존을 의미한다<sup>17)</sup>는 사유로 설명되어진다면 담의 가치를 일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게 된다. 궁

17) 조성훈(2001), 「Gary Snyder의 시와 일반경제에 관한 소론」 이론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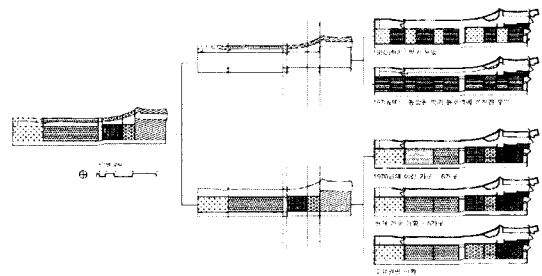


그림 18. 성장도

궐 담의 외면에는 일반 서민의 변용으로 궁궐, 왕권의 경계라는 그 상징적 가치보다는 습기찬 사괴석담이라는 즉물성(即物)만이 부각되어있다. 궁궐의 영역을 보호(內面)하고 경계(外面)지우는 담에서 담의 외면이 서민들의 방벽으로 내면화되고 육화(유기체)된 것이다. 또한 담이 지니고 있던 단일적 가치, 즉 왕권은 각기 다른 서민 주택의 담으로 절편 되어 한 다양체<sup>18)</sup>의 토대가 되었다.<그림 20> 주거지 내에서 이러한 다양체의 속성은 각 주거들의 개별적인 부엌 지붕들이 만나는 접변의 트여진 틈새 공간<사진 7, 9>으로 보여진다. 제 3계열에 해당되는 우연은 일체화로 등장한다. 신축 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민원을 우려한 신축 건물의 건축주는 공사후 담과 지붕의 수리를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개별적으로 변형되어오던 지붕과 담은 동시간대로 통합되어 일체

18)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p. 68 “늑대는 한 마리인가 여러 마리인가?” 다양체의 꿈의 본질적 특성중의 하나는 그 각각의 요소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다른 요소들과의 거리를 변경시킨다는 점이다. 턱과 늑대는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도들로, 다른 다양체들과 함께, 문턱들의 극한에서 눈과 늑대, 향문과 늑대로 변형되는 하나의 다양체를 형성한다. 도주선 또는 탈영토화의 선, 늑대-되기, 탈 영토화된 강렬함 들의 비인간-되기, 이것이 바로 다양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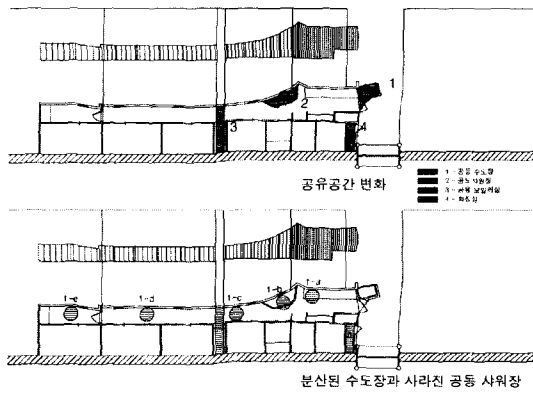


그림 19. 공유권 변화 분석도

화된다.<사진 8,12>

2. 유지(維持)되는 표현

한 주거지에서 우연성들이 물화 된다는 것은 그 주거공간이 살아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주거 환경에서 유지되는 공간이나 표현으로 그 주거의 특성을 논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보여졌던 원서동 94번지의 유지되는 표현을 기술하고자한다.

1) 지붕골조 형상

신축 이전의 지붕 골조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른 집과는 달리 긴 부재 한 쌍을 맞붙여 어긋나게 배치한 특이한 지붕 골조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있다.<사진 13> 이는 사용되는 재료와는 상관없이 형상을 유지하는 거주자의 무의식적인 기억 혹은 재현(再現)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형상에 대한 재현은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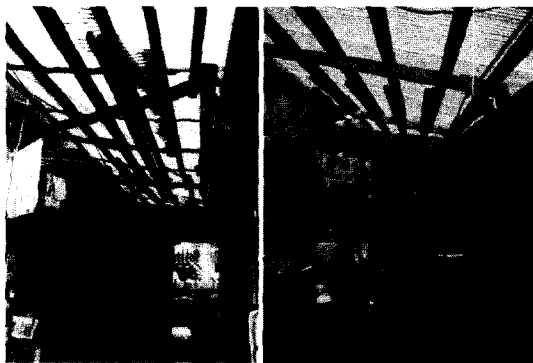


사진 13. 지붕형상

(C.G.Jung)의 원형에 대한 부연<sup>19)</sup>으로 설명되어진다. 여기서 골조 형상이 유지된 이유는 거주자의 이전과 같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즉, 수리를 위하여 지붕 위를 걸어야 할 수 있는 골조 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골조 체계의 습득은 취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이해와 거주인의 체험에서 구상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2) 부엌 영역

현재 심철복씨의 부엌은 철거되었지만 여전히 심철복씨의 부엌영역은 뚜렷하다. 일률적으로 시멘트 마감된 자신의 부엌 영역에 하늘색의 페인트를 칠해 놓았다.<사진 14, 우측> 심철복씨가 자신의 부엌공간 영역을 표현하려는 확고한 욕구는 유지되고 있다. 이전의 부엌은 <사진 14>의 좌측 사진에서와 같이 자신의 부엌 영역위로 수직적으로 구축된 독립 공간으로, 공유하는 개방적인 통로의 공간에서는 유일한 실내화된 독립 공간으로 모든 거주민의 샤워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의 표현은 원형적인 주거 방식을 상기 시켜주며 '살아있는 주거'의 공간성과 거주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용되고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3) 자생적 질서

94번지 주민들이 구축한 장소성과 공간성은 거주하고자하는 확고한 의지와 재정적 한계 상황에서 창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거주 원형적 의미를 발현하는 건축 언어가 생성될 수 있었다고 판



사진 14. 부엌표현

19) Jolande Jacobi, 『C.G. 융 심리학 해설』. 권오석 옮김, 홍신문화사, 2000, p. 342. 마음의 작용이 갖는 원형적인 존재방식의 재현.



사진 15. 용훈이네 빨래

단된다. 따라서 의미의 측면에서 94번지는 의식적인 지각 혹은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재 복원과는 상반되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94번지는 시대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자생적 성장을 해왔다. 따라서 그 성장에 관한 연구는 자생적 질서의 측면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는 본질적으로 어떤 궁극적 목적을 갖거나, 이에 봉사한다고 볼 수 없다, 자생적 질서 속에서 행위 하는 사람들만이 무언가 자신들의 목적을 갖고 있을 뿐이다'라는 자유의지에 따른 상향적 선택 원리<sup>20)</sup>로 설명되어진다. 하이에크(Hayek)에 따르면 사회 질서는 두 가지 기원을 가질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sup>21)</sup>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되고 고안된 질서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의 내재적 창발성(創發性)에 의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자생적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란 수많은 인간들이 수행하는 행위를 통해 출현하는 것이며, 그 질서의 산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설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強制)된, 혹은 부과(附課)된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sup>22)</sup>고 한다. 이러한 질서는 신축이후 일괄적으로 통일된 부엌 천장에 대한 각 주거의 대응에서 읽을 수 있다. 신축 후 투명 골 슬레이트로 마감되어 이전의 시멘트 슬레이트로 마감되어 습하고 어두운 실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트임 없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빛으로 인해 통로의 환경은 열악해

20) 박준식, 김호기(2000), 「공동체, 시장,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콜로키움 발표 논문.

21) 박준식, 김호기(2000), 「공동체, 시장,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콜로키움 발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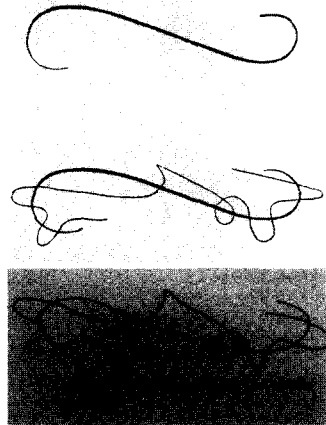


그림 20. Le P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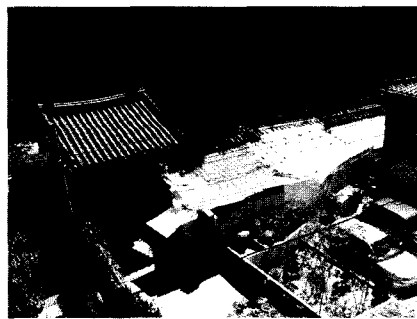


사진 16. 주거지 현황

졌으며, 이 변화된 환경에서 각 주거마다 적당량의 햇빛을 조정하기 위해 부엌 상부를 부분적으로 덮는 장치들이 부가되고 있다.

## V. 결론 - 긍정적 개선방안의 기초

본 연구는 원서동 94번지의 물리적 실측 조사를 위주로 전개되었다. 또한 문화재에 부여된 의미와는 다르게 거주자들이 창출한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계획된 주거 환경에서 접할 수 없는 실제 거주민의 요구와 표현에서 보여지는 주거의 원형적 공간은 현재 철거 논의 대상이 되고있는 94번지의 외관이 물리적 가치 기준으로 존립을 논할 수 없는 '내용(contents)'의 포피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었다. 여기서 '내용'은 문화재라는 추상적 가치와 대등한 거

주의 욕구(새 be sheltered)와 그 역할이다. 경제적 한계 상황에서 주변환경을 자기화(personalization)하여 물화된 주거에 대한 욕구는 장소성을 구축하고, 그 장소성은 지역성의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건축의 기술(description)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거주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물리적 대상일 뿐인 궁궐 담의 상징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내용의 표피일 뿐인 “무허가 94번지”의 물리적 가치와 거주자의 가치를 동일시하여 철거하겠다는 논의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주거지 철거를 당연시하는 논의를 긍정적인 개선방향으로 전향하게 하는 원서동 94번지의 거주자의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주거공간의 구축 욕구와 그 의미이다. 현대 주거환경 계획에서 재론되고있는 거주 공간의 자기화 작업은 94번지의 지붕형상의 재현과 부엌 표현행위로 거주 장소에 실체화(實體化)되어 나타나 있다. 지속적으로 행해진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자생적 질서의 과정은 복원-의식적 지각을 위해 궁궐 담이라는 문화재에 부여된 의미론적 가치 판단기준과는 대조적으로 대상주거지에 적용된 단일의 가치 판단기준, 즉 주거 형상에 대한 물리적인 가치 판단의 층위를 의미론적 층위로 끌어올리는 주체적 환경 인자가 된다. 이러한 의미론적 층위는 중첩된 역사적 도시의 층들을 상기시키는 장소성의 구축이다.

둘째, 궁궐 담에 대한 주거지의 역할이다. 상징적 가치의 형상인 담에 내용, 삶이 접하여 그 단일한 가치의 물리적인 대상물, 즉 궁궐 담의 다양한 이면을 창출하는 내용의 주름으로 상징적 측면에서 의미가 소거된 궁궐 담을 살아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20><sup>22)</sup> 따라서 원서동 무허가 94번지의 주거형태는 문화적 수정<sup>23)</sup> 혹은 한국의 근대라는 특

정 시간적 층위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적용된 획일적 주거 양식, 그리고 키치적<sup>24)</sup> 주거양식들 사이에서 자생적 구축이라는 도주의 선<sup>25)</sup>을 그리며, 양식화되지 않아 적극적인 고유한 삶의 표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성의 구축 과정과 그 통합이다. 지역 건축의 기본적 특성이 어떠한 이념이나 양식에 종속되지 않고 고유의 시간과 공간개념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원서동 94번지의 주거환경은 양식의 이입이 아닌 장소성과 거주자의 내용,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역적 주거계획으로 이후의 서울이라는 다층적 도시의 장소성 구축에 고려되는 항목들의 통합과 조율에 관한 사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94번지 주거지를, 무허가라는 물리적인 가치 기준만을 적용하여 철거의 논의를 정당화하기 이전에, 문화재의 영역을 보호하는 담과 그 담을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건축언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주체(programmer)로서 인식하는 긍정적인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대한 건축학회(2000), 주거론, 기문당.
2. 양운재(1991), 저소득층의 주거지 형태 연구.
3. Hassan Fathy(1969), Gourna, a Tale of two Villages,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2000), 정기용 번역, 열화당 미술책방.
4. C.G. Jung(1948), Analysis of Unconsciousness, 융, 무의식의 분석(1997), 설영환 옮김, 선영사.
5. 장순용(1999), 창덕궁, 대원사.
6. IN-EX 01 Projects(1999), extra-ordinary, Birkhauser.
7. Gilles Deleuze et Felix Guattari(1980), Mill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Les Editions de Minuit, 천개의 고원(2001) 옮긴이 김제인, 새물결출판사.
8. 한국 건축사(2000), 기문당.
9. 이정우(2001), 주름, 갈래, 울림, 거름 출판사.

22) Paul Klee가 Bauhaus 교육 스케치북에 실은 그림으로 첫 번째 선은 “능동적인 선, 이것은 목적 없이 그 자신이 마음대로 산책한다. 움직이는 인자는 이동하는 점이다.”로 설명하고, 둘째 선은 “어린이들을 동반한 같은 선”이라 했다.

23) 이희봉(2000), 『주거론』, 주거와 문화, p. 30, 대한 건축학회

24) Clement Greenberg(1939), 『The Avant-Garde and Kitsch』와 이희봉(2000), 『주거론』, 주거와 문화에서 언급된 “가짜문화”-건축가라는 집단의 부분문화가 상상한 60년대 문화주택으로 대변되는 서양의 기능주의와 형태미학에 치중된 문화에 근거한다.

25)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제인 옮김, 새물결. 2001, p. 388-389, 도주선에는 그 어떤 상상적인 것도, 그 어떤 상징적인것도없다. 도주선은 현실이다.